

남구청 정다워, 남자양궁 정상 썼다



지난 10일 열린 올림픽제 폐기점 제40회 회장기 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수확한 광주선수단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올림픽제 폐기점 제40회 회장기 대학실업양궁 개인전 우승

광주여대 오예진 '은메달'·남구청 이승윤 '동메달' 광주시청 단체전 준우승...순천시청 서보는 3관왕

광주 남구청 정다워가 올림픽제 폐기점 제40회 회장기 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정다워는 지난 10일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개인전 결승에서 남유빈(국군체육부대)을 세트스코어 4대2로 꺾고 소속팀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준결승에서 한솔밥 대결을 펼친 팀 선배 이승윤은 동메달을 수확했다. 정다워는 이번 대회에서 배재현(청주시청·6-2), 이승신(현대체철·6-2), 김하준(광주시청·6-4), 조대진(대전

중구청·7-3), 이승윤(광주 남구청·6-4) 등 국내 남자 실업양궁 경쟁한 선배들을 연파하며 결승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광주체고-한체대를 졸업하고 지난해 남구청에 입단한 정다워는 이승윤에 이은 광주 남자양궁 주역으로 주목 받고 있다. 여자대학부에서는 오예진(광주여대)이 개인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예진은 결승에서 장미(경희대)를 상대로 슛 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5대6으로 아쉽게 패했다.

여자일반부 광주시청은 단체전 은메달을 합작했다. 기보배, 최민선, 이가영, 이보영이 호흡을 맞춘 광주시청은 16강에서 하이트진로(5-3), 8강에서 여주시청(5-4), 준결승에서 홍성군청(5-1)을 꺾고 결승에 올랐으나 마지막 인천시청(1-5)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여자대학부 순천대는 단체전 동메달을 수확했다. 순천대는 8강에서 광주여대(6대4)를 꺾고 준결승전에 올랐으나, 4강에서 경희대에 막히며 동메달에 그쳤다. 시도대항전으로 열린 대학부 혼성전에서는 광주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오예진(광주여대)과 이원주(조선대)가 팀을 이룬 광주는 16강에서 울산(5-4), 8강에서 경북(5-1)을 꺾고 준결승에 올랐으나, 북병 서울(2-6)에게 털리며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남자일반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정다워(오른쪽)와 동메달을 따낸 이승윤.

8강에서 대구, 4강에서 경기팀을 연파하며 결승에 오른 전남(순천대 서보·은·김성현)은 결승에서 서울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퀴리퍼케이션 50m와 6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서보은은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박희중 기자



지난 9일 열린 제12회 광주시협회장배 파크골프 대회 개회식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등 내빈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제12회 광주시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성료 전갑수 회장 "첨단 대상파크골프장 증축 순조"

제12회 광주시협회장배 파크골프 대회가 지난 9일 광산구 서봉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체력증진과 광주시 파크골프 발전을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3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4인 1조 36홀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됐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장애인 등 누구나 쉽게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귀순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금용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장, 이용범 광주 파크골프협회 회장 등과 개회식에 참석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격려금을 전달하고 경기를 참관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빛고을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한마당 축제가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오는 8월로 예정된 첨단대상 파크골프장 증축공사가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파크골프 가족들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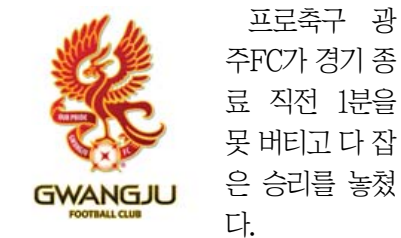
'끝내기 이글' 박민지 단일 대회 3연패 위업



박민지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단일 대회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박민지는 11일 열린 KLPGA A 투어 쉐틀리온 퀸즈 마스터즈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4개로 1인타파 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0타를 기록한 박민지는 이예원과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들어갔다. 18번 홀(파5)에서 진행된 연장전에서 박민지는 약 3.5m 이글 퍼트를 넣고 버디로 먼저 경기를 끝낸 이예원을 따돌렸다. 우승 상금은 2억1천600만원이다. 이로써 박민지는 지난해 11월 SK설타·SK텔레콤 챔피언십 이후 7개월 만에 정규 투어 통산 17승째를 따냈다. 투어 17승은 20승의 고(故) 구옥희 전 KLPGA 회장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신지애에 이어 최다승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또 고 구옥희 전 회장과 박세리, 강수연, 김해림에 이어 KLPGA 투어에서 단일 대회를 3회 연속 제패한 5번째 선수가 됐다. /연합뉴스

광주FC, '마지막 1분을 못 버티고'

'승격 동기' 대전 원정 정호연 선제골 불구 극장골 허용 무승부



프로축구 광주FC가 경기 종료 직전 1분을 못 버티고 다잡은 승리를 놓쳤다. 광주는 지난 1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승격 동기' 대전과 하나원주 K리그 2023 18라운드 원정에서 1대1로 비겼다. 광주는 이날 무승부로 4연승에는 실패했지만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은 이어갔다. 또한 이정호 감독 부임 후 대전과 6차례 맞대결에서 2승 4무, 확실한 우위를 지켰다. 경기 초반부터 양 팀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광주가 전반 8분 대전 이진현의 기습적인 슈팅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이준이 막아내며 위기를 넘겼다. 전반 중반부터는 광주가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민기가 전반 19분 토마스의 슈팅이 빗맞은 걸 쇄도하며 재차 슈팅했으나 골키퍼 이창근이 막아냈다. 이어진 코너킥 기회에서 아사시가 허를 찌르는 슈팅을 시도했으나 이창근 손을 뚫



광주FC 정호연이 지난 10일 열린 대전과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40분 선제골을 터뜨린 후 기뻐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지 못했다. 아사시가 다시 대전을 위협했다. 그는 전반 38분 수비수 2명을 달고 때린 슈팅이 살짝 빗겨갔다. 광주가 선제골에 성공했다. 전반 40분 정호연이 돌파하면서 때린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대전의 골망을 흔들었다.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이희균과 김한길을 투입, 빠른 축구로 추가골을 노렸으나, 반격에 나선 대전의 공세에 흔들렸다. 후반 5분 대전 이진현의 슈팅이 골키퍼 이준의 손에 맞고 크로스바를 때

렸다. 이어 김안균의 슈팅은 이준의 선방에 막혔다. 선수비 후 역습을 맞춘 광주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다. 이순민이 후반 27분 기습적으로 때린 중거리 슈팅은 이창근 선방에 걸렸다. 이어진 코너킥 기회에서 아사시의 헤더는 살짝 빗겨갔다. 후반 막판 아사시의 일대일 로빙 슈팅은 아쉽게 골대를 빗나갔다. 광주의 승리로 굳어가던 경기는 후반 추가시간 4분 중 1분을 남기고 대전의 극장골이 터지며 승부는 원점이 됐고, 경기는 1대1로 마무리됐다. /박희중 기자

'멀티골' 광주FC 토마스, 17라운드 MVP 선정

티모 '주간 베스트11' 뽑혀

프로축구 광주FC의 토마스가 17라운드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하나원주 K리그 2023 17라운드 6경기를 평가한 결

과, 멀티 골로 팀을 승리로 이끈 토마스를 MVP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베스트11 수비수 부문에는 티모가 이름을 올렸다. 토마스는 지난 7일 열린 수원삼성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23분 두현석의 패

스를 환상적인 감아차기로 연결시키며 동점골이자 본인의 K리그 데뷔 골을 터뜨렸다. 이후 경기 종료 직전 수비수를 맞고 흘러나온 공을 재차 슈팅으로 연결시키며 멀티골을 기록, 짜릿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됐다. /박희중 기자

수비수 부문에 이름을 올린 티모는 탄탄한 대인방어와 안정된 경기운영, 정확한 롱패스를 통한 빌드업을 선보이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한편, 연맹은 주간베스트11에 조현우(GK), 이명재, 박진섭, 박승욱(이상 DF), 송민규, 주세종, 레안드로(이상 MF), 마틴야담, 이호재(이상 FW)를 각각 선정했다. /박희중 기자

KIA 이의리, 프로 3년차 3번째 태극마크

"팔 빠지도록 던져야죠"

KIA 최지민·최원중도 항저우행 엔트리 합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원수 강속구 투수 이의리(21)는 프로 3년차에 벌써 세 번째 태극마크를 품었다. 지난 9일 발표된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최종 명단에 포함된 이의리는 이날 두산전을 앞두고 "가서 팔 빠지도록 던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프로 입단 첫해인 2021년 도쿄올림픽에 이어 올해 3월 월드베이스클래식(WBC)에도 출전했던 그는 이제 야구 대표팀 단골이 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 그는 "빠힌 건 물론 기분이 좋지만,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든다. 세 번의 대표 선발 모두 새로운 느낌인데, 가서 좋은 결과를 내고 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WBC 출전으로 일찌감치 시즌을 시작했던 이의리는 10일에 열리는 아시

안게임까지 다녀와야 한다. 체력 관리가 올 한해 성과를 평가할 변수가 된 것이다. 이의리는 "하던 대로 운동 많이 하고, 좋은 것도 챙겨 먹어야겠다. 특별하게 달라질 점은 없다"고 말했다. KIA에서는 이의리와 함께 원수 불펜 투수 최지민(20)도 대표팀에 뽑혔다. 대표팀에 후배가 생긴 이의리는 "지민이가 보여준 경기력이 너무 좋다.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원했다. 이들 2명 외에도 KIA는 외야수 최원중(26)까지 대표팀에 뽑혔다. /연합뉴스



안세영, 속적 야마구치 꺾고 '金'

2주 연속 국제대회 우승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세계 랭킹 1위인 '속적'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꺾고 2주 연속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다. 안세영은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00 싱가포르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야마구치를 2-0(21-16 21-14)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지난 4일 세계 5위 허빙자오

(중국)를 꺾고 태국오픈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2주 연속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해 1월 인도 오픈과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3월 전영 오픈을 제패한 안세영은 벌써 5번째 타이틀을 손에 쥐었다. 상대 전적 7승 12패로 열세인 야마구치를 상대로 따낸 우승이라는 점도 뜻깊다. 이제 안세영은 13-18일 열리는 BWF 슈퍼 1000 인도네시아오픈에서 3주 연속 우승을 정조준한다. /연합뉴스